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9 pp. 181-186,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9.181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북한 무인기 도발에 관한 Z세대의 안보 의식 조사

송세관
조선이공대학교 특수전 군사학과

A Study on the Security Consciousness of the Z Generation in the North Korean Drone Provocation

Se-Gwan Song
Department of Warfare and Military Scienc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요 약 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인해 한국의 Z세대가 느끼는 안보 상황을 분석하여 도출된 한국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보 능력 고취 방안을 조사하는데 배경과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00시에 소재한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고 각 변인 간의 상관분석은 Pearson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여 정규성 진단을 위한 기술통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로 첫째,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느끼고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대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국군의 전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동맹국과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문제 요인을 도출하는 기대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즉각적인 대응과 전투준비태세가 갖추어진 한국군의 장기적인 전투역량 강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ecurity situation felt by Generation Z in South Korea due to North Korea's drone provocation, how to address the security concerns faced by this generation, and how to promote the necessary security capabilities within the South Korean military.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with 212 college students. An analysis of the data was performed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SPSS 26.0 by calculating Cronbach's α value for reliability analysis and 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In addition, for the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for each variable, a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 for normality diagnosis was used through an independent-sample t-test and ANOVA. The study's finding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security situa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rs. They felt uneasy about the security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did not trust the preparation and respons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Second, for strategies to enhance South Korea's security capabilities, it was found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mbat capabiliti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it was recognized that maintaining a strong joint defense posture with an ally is crucial. These research results showed the expected effect of deriving the problem factor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long-term combat capabiliti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which are reliable and ready for immediate response and combat.

Keywords : Generation Z, Security, A Security Situation, Security Instability, North Korean Threats

*Corresponding Author : Se-Gwan Song(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email: segwans@hanmail.net
Received June 28, 2023 Revised July 31,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Published September 30, 2023

1. 서론

안보란 '편안히 보전됨'. 또는 '편안히 보전함'으로 정의하며 '안전 보장'을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1]. 또한, 안보를 타 국가 혹은 세력의 의도적인 위협에서 발생하는 불안으로 정의하고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안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의한다[2]. 의식은 사회적·역사적으로 환경에 따라 형성되는 개인·집단적 견해 또는 사상이다[1]. 이처럼 한 국가의 구성원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느끼는 견해나 사상을 안보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타 국가나 세력에 의한 위협이 인식될 때 안보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6. 25전쟁 이후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이념적 대립에 따른 군사적 대치를 병행하면서 서로를 이중적 잣대로 인식하고 대립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핵무기 개발, 첨단 무기와 장비의 열병식 등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또한, 위협의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항상성은 국경을 마주하고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된 국민에게 국가안보 불안으로 인식되고 있다[3].

북한의 위협 수단이 다변화되고 있는 근거가 지난 2022년 12월 26일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남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더해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근처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은 한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14년과 2017년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된 상황에서도 이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한국군에 갖추어져 있지 못했다는 충격이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4].

그중에서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방송매체에 민감한 Z세대에게 북한의 드론 위협은 한국의 안보 불안에 대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기존 세대보다 스마트 기기와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 되어 있는 Z세대는 내적인 가치보다 외모, 경제적 성공과 같은 외적 가치를 추구하며 삶의 만족감을 추구한다. 또한, 타인과 비교하여 쉽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개인화된 세대이다. 이렇게 Z세대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이 편한 개인화로 인하여 자신이 간섭받거나 방해받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5].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도, Z세대 성향을 고려한다면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여 불안한 안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들에게 국방 의무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서 비롯된 한국의 안보 상황을 Z세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군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와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첫째, Z세대가 인식하는 한국의 안보 상황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00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실시하였고 Z세대 범주에 포함되는 나이 조건과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로 조사를 시행하여 연구 대상인 Z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조사에 성실히 응한 182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인 2023년 3월, 1개월간 이루어졌다. 응답자 중 불성실 답변과 기재가 누락된 24부를 제외하고 최종 158부의 설문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공계열 대학의 특성과 국방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남성 조사자의 수가 여성보다 30%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2.2 연구도구

2.2.1 한국의 안보 상황 인식

Z세대가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국방대학교가 실시한 범국민 안보 의식 조사[3]의 설문 문항 구성에서 총 6문항으로 구성하고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문항의 검증은 국방정책 및 안보 관련 학회의 안보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2.2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

한국의 안보 상황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국방대학교 범국민 안보 의식 조사[3]와 국방부 국방혁신 4.0의 추진내용[6]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국방정책 및 안보 관련 학회의 안보전문가 3인의 자문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Verifying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Question sec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Awareness of the Security Situation	Factors in the Security Situation in Korea	6	.824
Awareness of Measures to Promote Security Capabilities	Measures to Improve Security Capability	5	.810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인식 간 문항의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에 관한 인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 진단을 위한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에 관한 인식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의수준 $p<.05$, $p<.01$, $p<.001$ 하에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성별은 남성이 103명(65.2%), 여성이 55명(34.8%)이었고, 연령은 만 20세 미만이 66명(41.8%), 만 20-22세가 73명(46.2%), 만 23세 이상이 19명(12.0%)으로 조사되었다.

학과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84명(53.2%)으로 이공계열 74명(46.8%)에 비해 많았고, 군필 여부로는 미필 대상자가 82명(51.9%)으로 군필 대상자 76명(48.1%)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 특성 중 남성과 23세 이상, 이공계열과 군필 특성에서 안보 상황 인식과 안보 능력 고취에 대한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Verifying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Category		N	%
Gender	Male	103	65.2
	Female	55	34.8
Age	Under 20	66	41.8
	20 to 22 Years Old	73	46.2
	23 Age or Older	19	12.0
Department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84	53.2
	Science and Engineering Studies	74	46.8
Military Service Status	Fulfilled	76	48.1
	Unfulfilled	82	51.9

3.2 한국의 안보 상황 인식과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인식의 상관관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에 관한 인식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에 관한 인식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81$, $p<.01$). 따라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에 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Category	Awareness of the Security Situation	Awareness of Measures to Promote Security Capabilities
Awareness of the Security Situation	1	
Awareness of Measures to Promote Security Capabilities	.481**	1

** $p<.01$

3.3 한국의 안보 상황 인식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의 안보 상황 인식에 관한 설문의 기술통계 결과 ①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미사일, 드론 등

의 대남 무력도발은 지속 또는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18.65%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②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 시 미국 등 동맹국이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 17.65%, ③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직접적인 대상이라는 것이 17.56%, ④ 자신의 안보 의식 수준이 높고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16.8%, ⑤ 한국의 안보 상황은 위험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16.47%, ⑥ 한국의 군사대비태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응답이 12.83%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Z세대가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준비 태세와 대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한국의 안보 상황 인식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3.83(SD=0.71)점으로 여성 2.86(SD= 0.76)점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7.957, p<.001), 연령은 만 23세 이상이 3.77(SD= 0.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 20세 미만은 3.35(SD =0.82)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서 평균 3.72(SD=0.72)점으로 이공계열 3.23(SD=0.94)점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3.644, p<.001), 군필일 때 3.98(SD=0.63) 점으로 미필 3.04(SD=0.81)점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8.203, p<.001).

따라서, 성별과 학과, 군필 여부에 따라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Security Situation in Korea

Category		N	M	SD	t/F	P
Gender	Male	103	3.83	0.71	7.957***	.000
	Female	55	2.86	0.76		
Age	Under 20	66	3.35	0.82	2.033	.134
	20 to 22 Years Old	73	3.54	0.93		
	23 Age or Older	19	3.77	0.67		
Department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84	3.72	0.72	3.644***	.000
	Science and Engineering Studies	74	3.23	0.94		
Military Service Status	Fulfilled	76	3.98	0.63	8.203***	.000
	Unfulfilled	82	3.04	0.81		

****p<.001*

3.4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인식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술 통계한 결과 ① 평시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안보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3.94%로 가장 높았고, ② 첨단장비와 무기체계를 갖추어야 안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63%, ③ 한·미·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 및 유지해야 안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응답이 21.13%, ④ 군 지휘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6.91%, ⑤ 북한과의 경제·정치·사회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으로 안보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14.37%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해서 Z세대는 한국군의 전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과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전통적인 남북 평화유지 수단으로 여겨졌던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Z세대가 긍정적인 방안으로 인식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한국의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성별에서 남성은 평균 3.60(SD=0.93)점으로 여성 2.93(SD =1.03)점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4.116, p<.001), 연령은 만 23세 이상이 3.53(SD=0.71)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 20세 미만은 3.29(SD=1.00)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과는 인문사회계열 평균 3.51(SD=0.92)점으로 이공계열 3.20(SD=1.09)점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군필 여부에 대해 군필일 때 3.78 (SD=0.88)점으로 미필 2.99(SD=0.98)점에 비해 높아

Table 5.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Korea's Security Capabilities

Category		N	M	SD	t/F	P
Gender	Male	103	3.60	0.93	4.116***	.000
	Female	55	2.93	1.03		
Age	Under 20	66	3.29	1.00	.463	.630
	20 to 22 Years Old	73	3.39	1.09		
	23 Age or Older	19	3.53	0.71		
Department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84	3.51	0.92	1.954	.052
	Science and Engineering Studies	74	3.20	1.09		
Military Service Status	Fulfilled	76	3.78	0.88	5.330***	.000
	Unfulfilled	82	2.99	0.98		

****p<.001*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330, p<.001). 따라서, 성별과 군필 여부에 따라 안보 능력 고취를 위한 방안에 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Z세대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관해 관심과 의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드론 등 위협 수단이 다변화되어 안보 불안을 느낀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군사동맹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북한의 체제와 북한군을 인식하였다. Z세대는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소통에 자유롭고 거부감이 없는 세대[7]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위협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들였으며 이에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 위협사태와 관련하여 드론부대 창설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국민에게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 정책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단발성의 정책과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미 미국의 경우는 2000년대부터 드론의 무기화 및 실전배치가 이루어졌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드론의 공격력과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2018년 제3야전군사령부 예하 부대로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여 운영 중이다[8].

이상의 내용과 같이 Z세대를 포함한 국민에게 신뢰받고 안보 능력을 고취하여 안보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군의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무엇보다 다변화되는 북한의 위협 수단을 분석하여 어떤 수단이 도발하더라도 조기에 식별하고 빠른 판단을 통해서 군의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가 Z세대의 인식으로 나타나 한국군에 실전적인 훈련과 전투준비태세가 필요하고 첨단장비 및 무기체계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하며 미국과 일본 등의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안보 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에는 해결해야 하는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다. 먼저, 저출산 기조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첨단장비와 무기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며 Z세대를 중심으로 한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9]. 그러므로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은 지속가능하며 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국방개혁이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Z세대가 인식하는 한국의 안보 상황과 안보 능력 고취의 방안을 분석하여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 확충에 정책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Z세대를 포함한 여러 세대의 충분한 인식에 대한 조사가 보완되어야 하고 안보 능력의 고취에 대한 인식은 향후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면접을 통한 의견수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한계와 후속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References

[1]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 Standard Korean Dictionary, 2023, Available From: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accessed May. 19, 2023).

[2] Y. S. Kim, The Dilemma of National Security Threats and Vulnerabilities, p.455, Bubmunsa Publishers, 2017, p.9.

[3] National Defense University, National Security Awareness Poll, National Defense University, Korea, pp.5-22.

[4] S. Y. Park, Army. "I can't shoot down the drone... What is the effect of installing a drone unit?", YTN, 2022, Available From: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271947024796 (accessed May. 23, 2023).

[5] S. G. Song, "A Study on the Military Service Consciousness of the MZ Gener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3, No.5, pp.1890-1891, 2022.

[6]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fense Innovation 4.0, 2023, Available From: https://www.mnd.go.kr/cop/pblictn/selectPublicationsUser.do?siteId=mnd&componentId=14&id=mnd_020704000000 (accessed May. 25, 2023).

[7] K. S. Oh, "A Study on the MZ Generation's Consciousness of Unification", *Korean Society for Peace Research Society,* Vl23, No.2, p.84, 2022.

[8] S. Y. Kim, The Age of Dronebots in the Sky and Ground, National Defense Daily, 2018, Available From: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002/3/ATCE_CTGR_0010030000/view.do (accessed May. 30, 2023).

[9] J. T. Park, "A Study on the Change of Defense Environment and Military Service System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3, No.3, pp.2511-2513, 2021.

송 세 관(Se-Gwan Song) [정회원]

- 2002년 2월 : 한남대학교 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정치학석사)
- 2018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군사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조선이공대학교 군사학부장
- 2020년 3월 ~ 현재 : 한국정치사회 연구소 기획위원장
- 2021년 3월 ~ 현재 : 미래군사학회 대외협력상임이사
- 2015년 3월 ~ 현재 : 조선이공대학교 특수전 군사학과 교수

〈관심분야〉
안보정책, 군사전략, 북한문제